

배포일시	2025일 05월 12일
보도일시	즉시
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903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E-메일: minjooq@gmail.com 홈페이지: <https://q4all.kr/>
유튜브: www.youtube.com/@오피큐알opqr

“국민참여 프로젝트 「모두의 질문Q」”

국민 목소리와 질문 담은 <녹서 2025> 발간, 이재명 대선후보에 전달!

- ✓ 6,000여 개 국민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기록, <녹서 2025> 발간!
- ✓ 질문참여자 박김영희(장애인인권운동가), 구교현(플랫폼배달노동자)씨가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<녹서 2025> 직접 전달
- ✓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, “정치가 국민의 질문에 응답할 때, 민주주의는 진보한다.”

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(센터장 박태웅)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**12일(월) 오전 10시 광화문광장**에서 열린 출정식 통해 **[다함께 만드는 세상 ‘모두의 질문Q’]** <녹서>전달식을 열고, 2개월간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목소리와 질문이 담긴 <녹서>를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.

<녹서 2025>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가 지난 해 10월부터 프로젝트 실무 준비를 시작하여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집단지성 프로젝트 <모두의 질문Q>의 성과물로, “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한 국민의 응답 6,315건(3월 31일 기준)을 수집·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며, 국민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기록이다.

특히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김영희 장애인인권운동가와 구교현 플랫폼배달노동자가 국민대표로 참여해, 국민 집단지성의 목소리가 담긴 <녹서 2025>를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달한다. 두 전달자는 <모두의 질문Q>의 유튜브 채널 OPQR(오늘 필요한 질문을 큐레이션 해서 알려드립니다)에서 각각 “전국에 맛집과 가보고 싶은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, 최소한 1층이라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(박김영희)”, “배달 라이더들,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궁금하셨죠?(구교현)”라는 질문을 한 바 있다.

<모두의질문Q>를 기획·운영한 박태웅 대표는 “이번 내란을 통해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그저 문서에 쓰인 글로 그쳐선 안된다는 것이었다. <녹서 2025>는 정치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‘무엇을 해야 할까요?’를 제대로 묻은 첫번째 결과물”이라며, “녹서의 발간은 시작일 뿐이다. 정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놓아야 비로소 마무리 될 것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.

대표 질문Q레이터인 김성환 국회의원은 “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. <녹서 2025>는 국민과 정당이 함께 만드는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, 민주주의의 실천적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”라고 평가했다.

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“대한민국의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며, <녹서 2025>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만들어 낸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녹서 2025>은 5월 12일 오전 11시부터 「모두의 질문Q」 홈페이지(<https://q4all.kr/>)와 「더불어민주당」 홈페이지(<https://theminjoo.kr/>)에서 누구나 전자문서(pdf)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<붙임> <녹서 2025> 사진. 끝.

<붙임> <녹서 2025> 사진

